



말씀

“부자와 하나님 나라”

오늘 복음 중에서 제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아예 못 들어간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이죠. 다시 말해 재물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 곧 부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저 이상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소아마비’라는 병명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부모님 세대분들은 학창 시절에 반에 한두 명은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소아마비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천여 명의 환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었고, 백신을 접종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연간 2백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이후에 단 한 명의 환자도 보고되지 않아서, 2000년 10월에 우리나라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아마비는 박멸 선언을 준비할 정도로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란 병이 예전처럼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일까요? 소아마비의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말

이죠.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특허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조나스 에드워드 소크(Jonas Edward Salk)라는 박사였습니다. 소크 박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자 수많은 제약회사가 특허를 양도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소크 박사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납품되는 소아마비 백신 1개의 값은 약 1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병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약이 있어도 약을 살 돈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재물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많은 이윤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이윤 창출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재물을 이용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원하면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물을 쌓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장비오(비오) 신부
백미(육군 9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지혜 7,7-11
- 회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제 2 독 시 히브 4,12-13
- 복음 권 호 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 음 마르 10,17-30
- 영 성 제 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정득 베드로



성인명: 김정득 베드로 (金丁得 Peter)

신분: 종인,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대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정득(金丁得) 베드로는 충청도 홍주의 대흥 고을에서 태어나, 친척인 김광옥 안드레아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이후, 그가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김 베드로는 김 안드레아와 함께 교회 서적과 성물만을 지닌 채, 공주 무성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면서 오로지 교리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탓에, 포졸들이 쉽게 그들의 종적을 찾아내고 말았다. 이후 베드로는 홍주로, 안드레아는 예산으로 각각 압송되었다. 홍주 관장은 김 베드로가 끌려오자마자, 그를 배교시키기 위한 문초와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김 베드로는 감사의 명에 따라 김광옥 안드레아와 함께 청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형벌과 옥중의 고통을 견디어 냈으며,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8월 21일(음력 7월 13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그들의 고향인 예산과 대흥으로 압송하여 참수하라.’는 명령이 덧붙여졌다.

예산까지 내려오는 동안 김 베드로와 김 안드레아는 천상의 기쁨에 가득 차서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들은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김 베드로는 예산에서 얼마를 더 가, 대흥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이튿날 읍내로 끌려나가 칼날 아래 목숨을 바쳤으니, 그때가 1801년 8월 25일(음력 7월 17일)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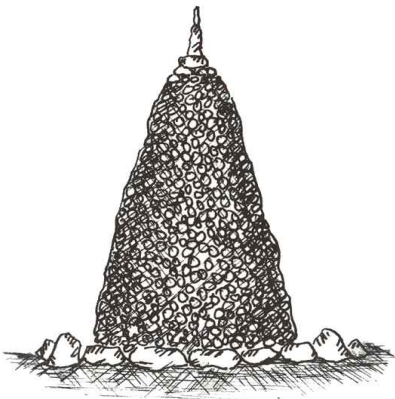
노고단

敬天愛人(경천애인)
하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노고단에서
하늘을 경외했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보고 왔다.

그 마음이 님의
마음과 같더이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상화이야기

세례지 요한 세례당 설교대



니콜로 피사노, 1260년

대리석, 높이 465m

세례지 요한 세례당, 피사(이탈리아)



본 작품은 세례당에 설치된 설교대이다. 6각형으로 제작된 이 설교대의 각 기둥은 먹이를 사냥해서 움켜쥔 사자가 받치고 있고, 각 면을 장식하는 부조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둥과 부조를 연결하는 부분에는 의인화된 선덕들이 보인다. 선덕은 악덕의 반대말로써 흔히 우리가 미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용맹이 의인화되어 조각되어 있다. 오른쪽 맨 상단에 있는 독수리 조각은 성경 및 책을 놓은 설교대이다.

의인화된 인물 중 하나인 힘을 상징하는 Fortitude 조각상(사자 거족을 왼손과 몸에 감싸고 오른쪽 어깨에는 아기 사자를 둘러메고 있다)은 헤라클레스를 연상시키는 조각작품인데, 이 작품이 제작된 중세시기(13세기)에는 찾아볼 수 없는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이상화된,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가 가득한 조각작품이라는 점에서 피사노의 선구자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높이가 5m에 달하는 이 설교대를 이렇게 공들여 제작한 것은 오늘 제2독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히브 4,12)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8주일: 육군본부 박근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은하수(1방공포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0월 14일(주일)
-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
 때·곳: 10월 15일(월)-19일(금), CBCK

◆ 군신교단 피정

- 때·곳: 10월 18일(목)-19일(금),
 소사 성분도 은혜의 집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리” (마르 16,15)